DAY 51 · 5부 안을 들여다보기

다 배운 AI에게 한 가지 일만 따로 더 가르칠 수 있을까? — 따로 더 가르치기

하루 5분 AI 수업 · 2026년 10월 27일

다 자란 모델을 다시 키우는 게 아니라, 필요한 만큼만 조금 다듬는 거야.

한 줄로 말하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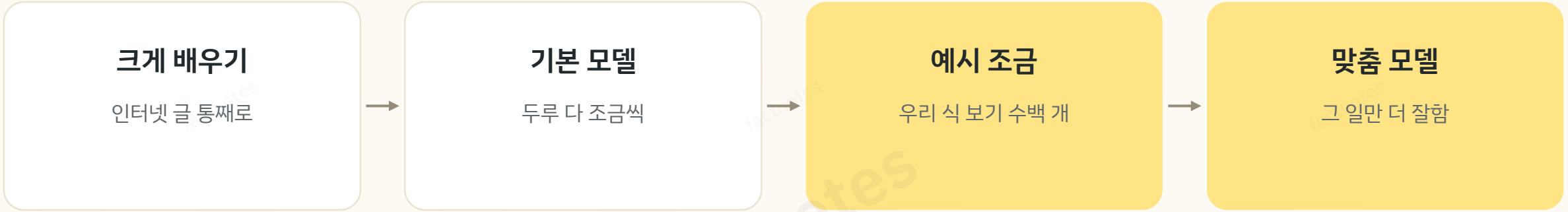
1. 있어. 크게 한 번 배운 **기본 모델** 위에, 필요한 일만 골라 조금 더 학습시키는 거야. 이걸 파인튜닝이라고 불러.

2.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게 아니야. 안에 든 숫자는 거의 그대로 두고 **아주 일부만 고쳐** — LoRA라는 방법은 고치는 숫자를 만분의 일까지 줄였어.

3. 대신 잘하는 게 정해져 있어. 따로 더 가르치기는 **말투와 형식**을 바꾸는 데 세고, 어제 배운 책 펴놓고 답하기는 새 사실을 넣을 때 쓰는 거야.

그림 한 장으로

AI 하나를 두 단계로 키운다



앞 두 칸은 그래픽카드 수천 장으로 몇 달이 걸려. 뒤 두 칸은 그에 비하면 훨씬 짧고 싸게 끝나.

핵심: 다시 키우는 게 아니라, 다 큰 모델을 조금 다듬는 것

실험 · 전후 비교

같은 모델, 조금 더 가르치기 전과 후

말투 맞추기

전

'광합성이 뭐야?'라고 물으면 교과서처럼 길고 딱딱하게 대답해. 틀린 말은 아닌데 읽다가 지쳐.

후

중학생한테 설명한 답 예시 몇백 개를 더 보여 줬어. 이제 세 문장으로, 비유를 하나 넣어서 답해.

안에 든 지식은 그대로인데 말투만 통째로 바뀌었어. 이게 따로 더 가르치기가 제일 잘하는...

형식 지키기

전

수학 풀이를 물으면 어떨 땐 식부터 쓰고 어떨 땐 설명부터 써. 물어볼 때마다 모양이 달라.

후

'식 → 계산 → 답' 순서로 쓴 풀이만 모아서 더 가르쳤어. 이제 거의 매번 그 순서로 나와.

말투처럼 틀에 맞추는 일도 예시 몇백 개면 꽤 잘 따라와.

새 사실 넣기

전

'이번 주 우리 학교 급식표 알려 줘'라고 물으면 그럴듯하게 지어내. 배울 때 본 적이 없는 내용이거든.

후

급식표를 몇 번 더 가르쳐 봐도 잘 안 외워. 다음 주 급식이 바뀌면 또 틀리고.

따로 더 가르치기는 새 사실을 외우게 하는 데는 약해. 이런 건 어제 배운 대로 책을 펴...

세 가지 일을 골라 보고, 「전」 과 「후」를 번갈아 눌러 봐. 바뀌는 것과 안 바뀌는 것이 갈릴 거야.

웹 수업에서 직접 해 볼 수 있어요 · next-token.net/learn/day-51/

확인해보기

세 문제만 풀어 보자

Q1 따로 더 가르치기(파인튜닝)가 하는 일은?

① 모델을 처음부터 다시 만든다
② 인터넷을 검색해 답에 붙인다
③ 이미 배운 모델 위에 조금만 더 가르친다
④ 사람이 답을 손으로 고쳐 준다

Q2 LoRA 같은 방법이 대단한 이유는?

① 답이 무조건 맞아져서
② 모델 크기가 반으로 줄어서
③ 인터넷 없이도 돌아가서
④ 고쳐야 할 숫자를 만분의 일까지 줄여서

Q3 매주 바뀌는 급식표를 알려 주려면?

① 찾아서 붙여 준다
② 더 가르친다
③ 모델을 키운다
④ 질문을 길게 쓴다

왜 그런지까지 알고 가자

Q1

③

이미 크게 배운 기본 모델을 그대로 두고, 필요한 일의 예시만 더 보여 주는 거야. 다시 키우는 게 아니라 다듬는 거지.

Q2

④

2021년 LoRA 논문은 안에 든 숫자를 거의 다 얼려 두고 아주 작은 부분만 학습시켰어. 학습할 숫자가 만분의 일로 줄었지.

Q3

①

실험 셋째 칸에서 봤지. 새 사실, 그것도 자꾸 바뀌는 사실은 외우게 하는 것보다 어제 배운 대로 펴서 보여 주는 게 맞아.

다 자란 모델을 다시 키우는 게 아니라,
필요한 만큼만 조금 다듬는 거야.



내일은 사람이 점수 매기기 — 답 두 개 중 사람은 어느 쪽을 고를까, 그 기록으로 AI를 다듬는 이야기.